

통합돌봄 클러스터 구축 모색

남원시-군산간호대, 아시아 및 전 세계로 확장 계기 마련 '지자체-대학 연계 디지털 돌봄 사업' 추진 방향·과제 논의

남원시와 군산간호대학교가 지난 16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통합돌봄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전략 세미나를 열고, 아시아 디지털사회보장협회(이하 협회) 회장 선출과 기부장을 임명하는 등 청담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

과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구축 계획에 따른 남원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최경식 남원시장, 진평기 남원시의회 의장, 강영석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국장, 임구영 군산간호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남원시 관계자 외 전국 사회복지 관련 기

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협회는 디지털 혁신과 기술을 통해 변화하는 돌봄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돌봄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아시아 및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창립에 앞서 강의를 통해 일본의 돌봄클러스터 산업 현황과 전망 등을 살펴보고, AI 시나리오 시연 후, 디지털 플랫폼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었고 '지자체-대학 연계 디지털 돌봄 사업' 추진 방향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지자체-대학 연계 디지털 돌봄 사업은 전북도 공모사업으로 남원시와 군산간호대학교가 컨소시엄을 구성, 디지털 기술을 통해 현재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 공모에 선정, AI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의 타당성 연구, AI 시나리오 개발 등 디지털 돌봄 플랫폼 구축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군산간호대학교에서 연구유역을 맡아 진행 중에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아시아 디지털사회보장협회 창립을 통해 기존 돌봄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돌봄 모형의 도출을 기대하며, 남원시 디지털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군산간호대학교가 지난 16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통합돌봄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개화 준비 본격화

포토존 추가 설치 등

임실군이 한국관광의 별이 된 임실치즈테마파크 내에 조성된 장미원의 개화 준비에 본격 돌입한다. 군은 치즈테마파크 장미원에 식재된 정원 장미 97종 2만4,000여 주에 대한 개화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를 위해 동절기에는 추위에 약한 장미 관리를 위하여 방풍벽을 설치 완료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내에 조성된 장미원.

<사진=임실군청 제공>

또한, 병해충에 취약한 장미의 체계적인 생육 관리를 위하여 겨울내 묶은 가지와 잎을 떨어낸 후 병해충 방제 및 시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5월 개화기까지는 장미 세부 수형 관리와 제초, 관수, 덩굴장미 결속 및 유도 작업 등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한다. 특히, 6월 준공 예정인 유럽형 장미원 3만8,705㎡ 면적에 97종 1만4,000여 주의 장미와 90m의 덩굴터널 등이 추가로 조성되면 기존 장미 1만주와 함께 더 풍성한 경관을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계절 초화류를 식재

하여 경관 수목과 어우러져 임실치즈테마파크에 방문하면 사계절 내내 꽃을 다채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월 장미 개화 시 다양한 문화 이벤트도 준비할 계획이다. 특색있는 포토존 추가 설치 및 배수로 정비, 장미 보식 작업 등 개화기 전까지 장미원 및 전반적인 경관 유지 관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친환경 쌀로 학생들의 건강 책임진다

순창군, 내달부터 제주도와 서울시 등 1100여개 학교 대상

순창군이 제주도와 서울시 등 1,1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쌀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해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진다.

지난 16일 군에 따르면, 관내 태이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 생산자 단체로 최종 선정되어 오는 3월부터 1,100여개의 학교에 1,000여톤의 친환경 쌀을 본격 공급한다고 밝혔다.

태이친환경영농조합은 2016년부터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매년 1,000여톤의 친환경 쌀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에는 친환경 농업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친환경 쌀 도정라인을 설치하여 친환경농업 현대화 시설을 개선하는 등 순창군 친환경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단체다.

이번에 공급되는 친환경 쌀은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의 철저한 관리 아래에서 안전하게 재배되었으며, 군은 공

급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이번 공급을 통해 제주와 서울의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순창군의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올 한 해 공급될 1,000톤의 친환경 쌀 가격은 약 34억원 정도로, 군은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쌀 생산을 장려해 민선 8기 군정목표 중 하나인 '돈 버는 농업'을 실현하고 친환경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건강하고 안전한 순창 친환경 쌀을 제주도와 서울 학생들 급식용으로 공급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19일부터 폐지 수집 노인 전수조사 실시

남원시가 오는 19일부터 '폐지 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폐지 수집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전수조사는 폐지 수집인의 현황 및 복지 욕구를 파악해 노일 일자리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자 추진되며, 지역 내 고물상 26개소를 대상으로 출입하는 수집 노인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조사할 예정이다. 오는 2월 29일까지를 집중 조사 기간으로, 시 담당부서에서는 고물상을 대상으로 폐지수집 노인들의 인적사항 확인 협조와 전수조사 안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의 일자리 연계방안 협의 등을 진행한다.

또한 읍면동에서는 확보된 명단을 바탕으로 가정 방문 등을 통해 개별적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설명 및 신청 안내,

욕구와 역량을 조사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위해 시 담당부서에서는 16일 간담회의를 통해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알리고 폐지수집 노인의 인적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파악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19일에는 읍면동 일자리 담당자 및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실무자 회의를 추진, 체계적인 전수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남원관광단지 내 달빛 정원 조성 공사 착공

남원시는 남원관광단지내 31년간 장기 방치되었던 구)비사벌 콘도 부지에 달빛정원 조성 공사를 착공했다고 밝혔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RE-PLUS)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15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지상 1층 연면적 3,820㎡ 규모로 실감 물

임형 미디어아트 전시 및 방문자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건축 및 미디어아트 설계를 완료하여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은 주변 관광시설인 춘향테마파크, 광한투원, 함과우 아트밸리와 연계하여 새로운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순창군이 지난 16일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총사업비 3억8,000만원을 투자해 학원 학습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족, 셋째 이상의 다자녀 가족으로, 보호자와 학생이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학습활동비 지원 신청은 월별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으며, 매년 3월에는 학년 변동이 있으므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을 통해 학습시설에 신청서를 2월 20일 전까지 제출하면 3월부터 지원받게 된다.

지원과목은 국·영·수 등 보습 과목과 예체능 포함 2과목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기준단가는 1과목당 초등 8만원, 중등 9만원, 고등 10만원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자치도-남원시 한옥건축 문화 확산지원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가 단독주택 용도의 한옥 건축 시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한옥 건축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한옥을 신축하거나, 등록한옥 또는 중·개·재축 또는 리모델링할 경우에 보조금을 면적별로 차별 지원, 금액은 공사비의 2분의 1이내 범위에서 신축의 경우 최대 5천만원, 중·개·재축 또는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천만원이다.

지원 대상 한옥은 실제 생활 및 거주목적의 단독주택으로, 바다 면적이 60㎡이상의 규모로 한옥의 형태 등은 '한옥 건축 기준'(국도교통부 고시)에 따라야 하고, 남원시는 전북자치도의 사업계획 확인 후 오는 29일까지 신청수요를 접수하고 4월 중 전북자치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